지식경제부 보도참고자료	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

별도 통보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자료문의 : 무역정책과 윤상흠 과장(2110-4829), 임형진 서기관(2110-5312)
수출입과 조영태 과장(2110-5331), 송정훈 사무관(2110-5333)

무역한국의 새역사, 2년 연속 1조 달러 달성

- 연내 세계 무역 8강으로 도약 확실 -

□ 2012년 12월 10일 오전 11시 6분 현재 잠정 집계한 결과 우리나라의 무역규모가 1조 달러를 달성하였음

○ 수출 5,128억 달러, 수입 4,872억 달러로 수출입합계 1조 달러 돌파

○ 글로벌 경기 둔화로 세계교역이 감소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다소 지연되었으나,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달성은 큰 의미

- 전반적인 교역감소에도 물량기준 수출(1~10월)이 전년동기대비 4.2%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 수출은 상대적으로 선전했다는 평가

* 주요 70개국 교역증가율(%) : (3월) 0.6, (4월) △1.2, (6월) △3.6, (8월) △5.8, (9월) △3.7

* 주요국 수출증가율(1~9월 누계, %) : (獨) △5.1, (佛) △5.3, (臺) △3.9, (日) △0.5, (中) 7.4

□ 특히, 금년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이탈리아를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세계무역 8강*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

* '12.1~9월 우리나라의 무역규모는 7,979억불로 영국에 이어 세계 8위

○ 한국 무역은 '02년 13위에서 불과 10년만에 8위로 빠르게 성장

* 우리나라 무역규모 순위 변화 : ('00~'02년) 13위 → ('03~'06년) 12위 → ('07~'08년) 11위 → ('09년) 10위 → ('10~'11년) 9위 → ('12년 전망) 8위

□ 이러한 성과의 주요 요인은 ① FTA의 효과적 활용, ② 중소기업의 약진, ③ 新시장 개척, ④ 수출품목 다변화 등이라 평가됨

① (FTA활용) 美, 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로 인한 수혜품목의 선전은 침체된 美, EU시장에서 우리무역을 지지하는 버팀목 역할

- (한-미 FTA) 對美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5.8% 증가에 그친 반면, FTA혜택 품목이 다수 포함된 자동차부품, 일반기계 등은 호조세

* '12.1~10월 수혜품목이 다수 포함된 자동차부품(14.8%), 일반기계(21.4%) 등은 전년대비 수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, 무관세 품목이 많은 전기전자(△19.7%) 등은 감소

- (한-EU FTA) 올해 10월까지 對EU 교역은 전년대비 수출 큰 폭 감소(△11.5%)하여, 전체 무역규모가 △3.4% 감소했으나, FTA로 인해 관세가 하락하는 주요 품목의 수출은 증가 추세

* '12.1~10월 간 자동차부품(2.3%), 석유제품(12.3%) 등이 높은 수출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, 이는 對EU 수출 감소세 둔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

② (중소기업 수출) 전년대비 대기업(△2.4%)과 비교하여 중소기업 수출이 상대적으로 증가(3.2%)하여 중소기업이 우리 수출의 허리임을 재확인

* '12.1~9월 수출증가율 : (전체) △1.6%, (대기업) △2.4%, (중소기업) 3.2%

③ (新시장 진출확대) EU시장의 급격한 침체를 지속적인 수출다변화 전략을 통해 아세안·중동 등 새로운 시장 수출확대로 극복

* 주요 수출 대상국별 수출증가율('12.1~11월 잠정치, %)
부진 : (對EU) △11.7 (對중남미) △7.5 (對日) △0.5%, (對中) △0.1
선전 : (對아세안) 10.0 (對중동) 13.8, (對CIS) 9.4 (對美) 4.8

④ (수출품목 다변화) 석유제품·자동차·IT 등 주력품목외에도 중전기기, 화장품 등 新효자품목의 약진으로 일부 품목의 부진을 만회

* 주요품목('12.1~11월 잠정) 및 新효자품목('12.1~10월)의 수출증가율(%)
- 주요품목 : (석유제품) 9.8, (자동차부품) 7.2, (선박) △29.2, (무선통신기기) △18.6 등
- 新효자품목 : (전자응용기기) 53.6, (중전기기) 27.9, (화장품) 20.4, (고무제품) 12.2 등

□ 금년 한해 정부는 EU 재정위기 등 대외적 위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연초부터 특단의 선제적 수출확대 지원 조치를 취한 바 있음

○ 우선 수출 중소기업의 새로운 수출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위기속에서도 수출이 확대될 수 있는 기회요인을 적극 발굴하고,

○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더 크게 겪은 상반기에 지원역량을 집중하고, 상시 실물경제 위기관리체제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함

① (FTA활용효과 극대화) 미국, EU 대상 수혜품목 수출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해외마케팅 전개와 체계적인 FTA활용지원 인프라 구축

* 자동차부품·섬유 등 高관세 혜택 품목별 특화 마케팅(KAP, Texworld 등)
* 최초의 민·관합동 FTA활용지원기관인 FTA무역종합지원센터 설치·개소('12.2)
* 체결대상 국가별로 상이한 무역정보를 통합·제공하는 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

② (신흥시장 공략 강화) 신흥시장 중심으로 무역금융 지원확대, 해외마케팅 지원, 인프라 확충 등을 상반기 중에 집중 추진

* 7대 신흥시장 무역보험 지원규모('12년, 억불) : (전체) 862, (상반기) 446
* '12년 전시회 참여지원(상반기/연간) : (해외) 63/100, (국내) 33/46
* 분야별 전문 수출상담회 ('11년) 58회 → ('12. 상) 41회

□ 그러나, '12년 상반기 우리 무역이 수출입 증가율이 둔화되었고, 무역흑자는 2/3수준으로 축소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음

* 상반기 수출증가율(%, '11년→'12년) :
(對EU) 16.7 → △16.1 (對중국) 15.7 → △1.5 (선박) 30 → △20.4

□ 이에 따라 정부는 하반기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처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 증대효과가 있는 현장중심의 마케팅과 무역금융 프로그램을 초단기적으로 총력 가동하였음

① (수출마케팅 분야) 9월 이후 수출 확대 가능성이 높은 중국·아세안·중동 등 신흥시장에서 시장개척 강화

* 9월초 예비비 편성 후 29개 수출마케팅 사업에 80억원의 추가재원 투입

- 세계의 시장으로 급부상한 중국에서 현지 온·오프라인 유통망을 통한 소비재 시장 개척 및 내륙시장에 대한 진출 강화

* 대형유통망 우수상품 판촉전(베이징, 난징 등 6개), 우한 한국우수상품전(12.6~8)

- 베트남, 미얀마 등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아세안 시장에서 한류를 활용, 중소기업의 소비재 진출 확대를 위한 대형 상품전 개최

* 베트남 한류유망상품전(11.6~8), 미얀마 양곤 한국상품전(11.8~10)

- 중동, 아프리카, 중남미 등 중소기업 미진출시장에 대한 무역사절단 파견 등 시장개척 활동을 강화

* 아프리카·중동 무역사절단(케냐·UAE, 이집트·터키), 쿠바 아바나 국제박람회(11.4~10)

- 대형 수출상담회 'Global Business Plaza' 및 아시아 유통망 바이어, 中·亞 화상기업, 교포 무역인 초청 수출상담회 연쇄 개최

9월 이후 수출마케팅 사업 추진 실적

구 분	해 외			국 내		합 계
	무역사절단	전시회	한국상품전	수출상담회	전시회	
당 초	123	74	1	26	21	245
추 가	+ 9	+ 5	+ 6	+ 5	+ 4(13)*	+ 29
합 계	132	79	7	31	25	274

* 신규 4개 전시회 추가, 기존 전시회(13개) 추가지원 포함시 총 17개 전시회 예산 지원

② (무역금융 분야) 무역보험 집중지원기간('12.8~10월) 운영, 중소중견기업 총력지원, 대형 프로젝트 수주강화 등을 위한 지원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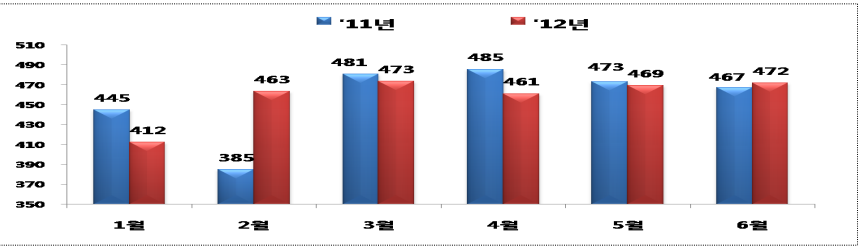
* 무역보험 지원(전체/ 단기수출 中企, 조원) : ('11) 192/17 → ('12년 추정) 200/ 19
* '12.11~'13.6월 구조조정 중소중견기업 회생을 위한 한시 특별 지원 등

③ (무역인프라 분야) 중소·중견기업의 신흥시장 개척 지원을 위한 무역관 대폭 확대, 공동물류센터 추가 개소 등 인프라 강화

* 신설무역관(6개) : 탄자니아, 인니, 에콰도르, 파라과이, 인도, DR콩고
* 공동물류센터 : ('11) 30 → ('12) 36개소(나이로비, 부다페스트, 상파울루 등 신규 개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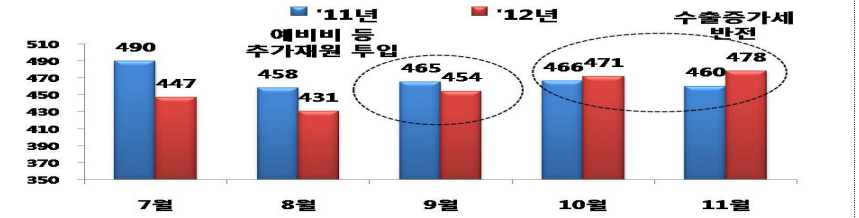
참고 **2012년 시점별 수출실적과 지원 프로그램**

상반기(1~6월)



수출 위기요인	가동 프로그램	실적 평가
·유로존 재정위기 지속 * EURO GDP성장률(%) : ('12.1Q) 0.0 (2Q) △0.2 ·중국 경제성장 둔화 * 중국 GDP성장률(%) : ('11.4Q)8.9 ('12.1Q)8.1 (2Q)7.6	·(FTA 활용) 자동차부품·섬유 등 혜택 품목별 특화 마케팅 ·(무역보험) '12년 상반기 7대 신흥시장 446억불 지원 ·(수출마케팅) 해외전시회, 수출상담회 개최 등 집중 지원	·수출증가율 둔화 * ('11.上) 23.6 → ('12.上) 0.5% ·무역수지 축소 * ('11.上) 153 → ('12.上) 109억불

하반기(7~11월)



수출 위기요인	가동 프로그램	실적 평가
·유로존 경기침체 장기화 * EURO GDP성장률(%) : (2Q) △0.2 (3Q) △0.1 ·원/달러 환율 하락 * 원/달러 평균 환율 추이: (8월)1,132.1 (9월)1,123.7 (10월)1,105.5 (11월)1,087.5	·(수출마케팅) 예비비 등 추가재원(80억원)의 신규사업(29개) 투입 * 9월 이후 수출마케팅 건수(당초→변경) : (해외전시) 74→79 (국내전시) 21→25 ·(무역보험) 집중지원기간(8~10월) 운영 및 지원규모 확대 ·(무역인프라) 신흥국 무역관 6개, 공동물류센터 6개소 신설	·수출 증가세 반전 * (9월) △2.0 (10월) 1.2 (11월) 3.9% ·무역수지 확대 * ('11.7-11) 132 → ('12.7-11) 159억불